

내포(內浦) 문화의 보고 가로림만 시대를 만들자.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옛부터 사람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은 어염시수(魚鹽柴水)가 잘 갖춰진 곳을 꼽았다. 어염시수를 풀어 보면 물고기 잡기가 편하고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땀 나무가 흔하고 물이 좋아야 한다고 했다.

이 네가지가 모두 갖춘 곳이 서산 땅이고 작게는 가로림만을 끼고 자리한 팔봉, 지곡, 대산을 얘기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운데 위치한 지곡은 삼한시대의 마한에 속하는 치리국국이라는 부족국가의 치소(治所)로 자리 잡아 백제와 통일신라, 고려를 거치며 3천년 이상을 치소로 이름을 떨쳤던 곳이다. 어느 지역이 3천 년 이상을

치소로 있었겠는가. 천도와 이주의 연속이었던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 볼 때 이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 인가를 입증해준다. 또한 이곳 치소에서 1km 지점엔 가로림만이 펼쳐지면서 닻개포(碇浦)가 있어 대중국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이다. 닻개포는 범선(帆船)시대에 선박의 입출항이 편하고 정박의 안정성이 뛰어난 곳으로도 유명하여 교역을 하는 자들과 사신들이 편히 이용하던 사신 행렬의 관문이었던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도 대당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고 당나라에 유학한 최치원의 문장이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떨쳤었는데 그 유명한 최치원을 이곳 부성 태수로 임명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도 앞서 말한 어염시수를 잘 갖춘 곳이기에 이곳으로 발령을 내렸던 것 같다.

이곳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운하로 연결하고자 노력했던 4백여 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다. 지금의 기술로는 1년도 채 안 걸릴 공사량인데 그 길고 긴 세월을 많은 인력과 국력을 쏟아 부은 곳이다.

동(東)으로는 서산만에 면하고 서(西)로는 가로림만, 북면(北面)은 산업단지로 공단이 접수한지 오래고, 서산만은 대호방조제로 잃었으며 남(南)으로 A, B 방조제로 천수만을 잃어 버렸다. 동서 남북이 바다였던 서산은 단 한곳 가로림만뿐인데 요즘 조력발전 운운하면서 주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고 이런 개발이 절대로 국익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아름답다 못해 눈이 부실정도로 가슴 찡한 감동을 주는 곳 가로림만을 다시 한 번 만나보길 권한다. 웅도는 모세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다. 바닷길이 갈라지면 갯벌위로 시멘트 포장길이 나와 차를 타고도 섬을 건널 수 있는 곳이다. 세발낙지와 굴, 바지락 등이 흔하고 민박집이 있어 갯바위 낚시 등 다양한 테마를 간직한 곳이다. 조용하고 작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별말은 태안의 만대와 마주보고 있어 낙조가 일품이다. 낮은 소금창고와 염전, 길게 건너가는 원뿔, 옛날엔 소로 갯벌을 갈아 소금을 만들던 벚길에서 유래된 마을 이름이다. 주변에 황금산(해발 120m)이 있어 이곳에 오르면 가로림만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데 해질녘 낙조와 어울려 작은 섬들과 낚싯배들을 감상하노라면 천상(天上)에 떠있는 느낌이다.

팔봉의 구도나루는 썰물 때면 끝없이 펼쳐지는 갯벌이 장관이다. 세계 5대 갯벌에 드는 이곳 가로림만의 갯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값진 보배인 것이다. 역사와 문화는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 국가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다. 그 속에 엄청난 창조적 자료들이 내포되어 있다. 4백여 년을 용트림했던 굴포운하의 유적지이며 천년의 대당무역의 교두보였고 백제의 사신들이 왕래했던 사신로이다.

닷개는 최근까지도 중국상선이 비단과 호염(胡鹽)을 싣고와서 교역했음이 1926년 서산군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 개풍농장 간척지로 매립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성백제가 웅진으로 천도된 후로는 서산땅 전체가 백제에 예속되어 가로림만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던 것이다. 지곡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적 혹은 유적환경으로 봐서 역사적 중요도가 크게 부각되는 부성산성의 존재로 본다 해도 이곳이 대당무역의 교두보였음을 여실히 증명된다 하겠다.

팔봉산에 올라 가로림만을 내려다보면 해상공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데 황금산에서 별말항, 오지 독곶 또한 앞서 말한 웅도항과 고파도항과 해수욕장, 구도와 중앙리, 도성리의 드넓은 갯벌 등 이곳이야말로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의 보고인 것이다. 역사, 문화, 생태, 해양 등에 관한 체험교육, 참여의 다양성 등을 들어 이루어야 할 수 없는 고색찬연함에 가슴뭉클해진다. 백제문화제가 세계대백제전을 치를만큼 성숙했지만 백제 사신로의 재현도 못하고 있다. 이곳 닷개포를 중심으로 사신의 왕래 장면을 재현하여 백제문화제를 부각시킨다면 중국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해상교류 왕국이었던 백제 문화와 역사를 한층 빛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곳을 훼손한다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천추의 한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쉽게 결정하여 천 년을 후회하지 말고 보전과 계승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것 같다.



서산지역 벧가릿대(禾竿) 신앙 연구

이 관 호
(국립민속박물관 과장)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서산지역 벧가릿대 신앙의 전승양상
 - 1. 벧가릿대 신앙이란?
 - 2. 건립위치
 - 3. 벧가릿대의 형태
 - 4. 벧가릿대 제의(祭儀) 과정
- IV. 맺음말 - 서산지역 벧가릿대 신앙의 특징

2. 건립위치

세우는 위치에 있어서도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벧가릿대를 세우는 주된 목적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식수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데 있는 만큼 대개 벧가릿대는 우물가나 들판, 바깥마당과 안마당, 외양간 옆 등에 세운다. 벧가릿대를 세우는 주체에 있어서도 전라도 진도지역¹²⁾의 경우 대개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벧가릿대를 세우는 반면, 충청도 서산·당진 일대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공동우물이나 들판 또는 마을 회관 등지에 세운다. 한편 서산지역의 경우 벧가릿대를 공공장소에 세우는 것 이외에 개인 농가 마당이나 개인 우물 옆에도 벧가릿대를 세운다. 그러나 진도지역과 다른 점은 벧가릿대를 세우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즉

12) 필자의 전화 조사(2002년 2월)에 의하면 현재 전라도 진도 지역의 경우 벧가릿대를 아무 곳에서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 약 7~8년 전부터 전승이 단절되었다고 한다. 1989년 필자가 진도 지역을 방문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집 마당에 벧가릿대가 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리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1996년경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벧가릿대를 4곳에 세웠다고 한다. 차리는 행정상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각 반에서 가장 잘 사는 집 마당에다 벧가릿대를 세워 주었다고 한다.

벧가릿대 세우기가 끝나면 풍물패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고, 이어 그 집에서는 답례로 술과 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어렵게 살던 시절 서로 도우며 나눌 줄 알았던 우리 조상들의 미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당진군 구룡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옛날 구룡리에서는 벧가릿대를 마을사람 공동으로 자연 마을마다 하나씩 세우는 것 이외에 부잣집에도 세워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부잣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내놓았다. 한편 부잣집 마당에 세워 두었던 벧가릿대의 경우 역시 음력 2월 1일날 넘어뜨리는데, 이 때 벧가릿대에 감았던 벧짚은 풍년이 든다고 하여 벧섬에 담아서 그 집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은 6.25 전쟁 이후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농촌지도소에서 파견 나온 '주재 지도사'가 이를 발굴하여 재현함으로써 현재는 3년마다 한번씩 윤달이 드는 해에 마을회관에 1개만을 세움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서산시 대산면 운산 5리의 경우에도 마을 회관 앞에 위치하고 있는 들판(논)에 벧가릿대를 세운다. 이 마을의 경우 벧가릿대를 세우고 벧가릿대 고사를 지낼 때 바로 위쪽에 있는 공동 샘에서 샘제를 지내고 있다. 벧가릿대 세우는 것 이상으로 샘제를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보아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포지역의 벧가릿대 신앙은 우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벧가릿대의 형태

벧가릿대의 생김새도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다. 대개 인지면 차리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소나무나 대나무를 베어 장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¹³⁾ 지곡면 장현 2리 경우처럼 묵은 대나무나 소나무를 해마다 사용하는 마을도 있으며¹⁴⁾, 충남 당진 구룡리의 경우에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전라도 진도지역의 벧가릿대 모습은 긴 장대 위에 벧짚단의 밑 부분을 묶고 그 안에 벼·조·피·기장 등의 온갖 곡식을 이삭 채 싸서 매달고, 그 밑에는 목화송이나 새끼줄 등을 늘어뜨려 놓는다. 그러나 충남 서산·당진 지역의 경우에는 소나무나 대나무를 베어다가 맨 꼭대기에 오곡(五穀)을 형겅에 싸서 매달고 짚으로 주저리를 틀듯이 장대를 감싼 다음, 벼이삭이 늘어진 모양으로 동아줄 3개를 거꾸로 틀어 줄을 매어 세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유형별로 그 생김새를 살펴보면 당진 구룡리의 경우 벧가릿대를 세우려면 우선 약 6m 정도 되는 긴 소나무 한 그루와 왕대나무 한 그루를 윗가지를 자르지 않은 채 베어 온다. 대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곧게 뻗어 올라가므로 마을의 운수가 대나무와 같이 곧게 뻗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하고, 소나무 역시 솔잎처럼 푸름과 곧은 절개를 닮으라는 의미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이어 마당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포개어 세운 다음 그 대를 짚으로 주저리처럼 감싸는데, 이를 '옷 입힌다'고 한다. 벧가릿대를 쌓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드러나면 보기에 흉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짚으로 3개의 동아줄을 꼬아 위로부터 바닥에 고정시킨다. 대 꼭대기에는

짚으로 지름이 약 10cm정도 되는 오쟁이를 만들고 그 안에 오곡을 각기 주머니에 담아 넣는다. 여기서 오쟁이를 '종태미' 라고 부른다. 오곡은 벼, 조, 팥, 수수, 기장으로 각기 이를 재배한 집의 것을 사용한다. 즉 기장을 심은 집에서는 기장을 내놓고, 콩을 심은 집에서는 콩을 내놓는다. 한편 벧가릿대 옆에는 '농자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쓴 농기를 세워 놓는다.

두 번째 형태로 인지면 야당리의 벧가릿대¹⁵⁾를 들 수 있다. 즉 정월 보름에 마을 사람들은 인근 야산에서 약 15년생 정도 되는 소나무(길이 약 5m, 밑지름 약 15~20cm) 한 그루를 베어와 벧가릿대를 세운다. 이를 마을 사람들은 '벧가리 세운다' 고 한다. 벧가리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재료로는 소나무, 벧짚, 오곡종자(벼, 조, 수수, 기장, 콩), 한지, 무명천 등이 필요하다. 소나무는 윗가지만 남겨놓고 잔가지는 모두 베어낸다. 벧짚은 삼방(三方) 줄을 끄는데 이용된다. 삼방줄은 세 방향으로 소나무의 위 부분에 매달고, 땅에 말뚝을 박아 고정한다. 삼방줄은 소나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아줄을 엮듯이 제작하며 닭 벼슬처럼 짚을 길게 늘어뜨려 제작한다. 한편 오곡종자는 각 종자마다 한지에 싸서 무명천으로 감싼 다음 소나무와 삼방줄이 연결 되어 있는 부분에 매달아 놓는다.

또한 서산시 대산면 운산리의 경우 나무를 소나무나 대나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벵이삭이 늘어진 모양으로 동아줄을 거꾸로 틀어 줄을 맨다는 점이 다른 마을과 다르다. 이외에 다른 형태의 벧가릿대로는 서산시 지곡면 장현리를 비롯한 지곡면 일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벧가릿대는 살아있는 대나무 대신 죽은 대나무를 장대로 하고 그 맨 꼭대기에 수수대나 꿩장목을 묶어 놓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서산지역의 벧가릿대는 대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목을 묶어 놓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서산지역의 벧가릿대는 대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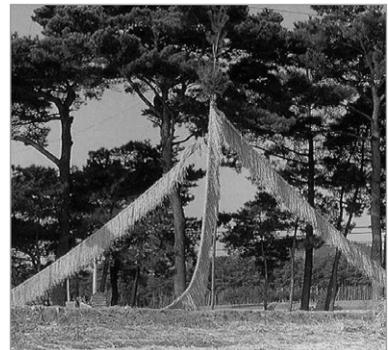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벧가릿대 세우기(삼방줄) : 장현 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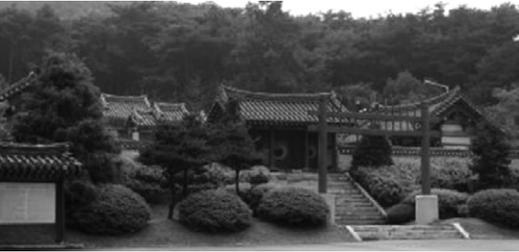


벧가릿대 세우기(지신뵈기) : 장현 2리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벧가릿대

13) 서산시 인지면 차리, 인지면 야당리, 서산시 대산면 운산리,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등
 14)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지곡면 환성 2리와 3리, 지곡면 연화리, 지곡면 산성 2리 등
 15) 야당리의 벧가릿대는 198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으나, 행사 주관층의 고령화와 비용문제 등으로 1997년경부터 그 전승이 단절되었다. 한편 야당리의 벧가릿대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는 서산시 온석동의 벧가릿대가 있으나 최근 새롭게 연출하여 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축문 등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마을의 사례(해미면 동암리 등)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그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나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계승방안이란 측면에서 주목된다.



충무공 정충신



정충신은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晩雲)으로, 금천군(錦川君) 윤(綸)의 아들이다. 1576년(선조 9)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정충신은 원래 광주의 아전이었다고 하고, 야담에는 정충신의 아버지가 광주 향청의 좌수였다고 한다.

정충신은 임진왜란때에 광주목사로 있던 권율의 통인 노릇을 하였는데, 권목사의 충애를 받아 17세의 어린 나이로 왜군들 사이를 뚫고 장계를 행재소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곳에서 이항복의 추천으로 가을에 행재소에서 실시하는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된다. 광해군 때 조정에서 정충신을 권주위에 보내어 호국(胡國)의 정세를 살피게 하였는데, 호국의 여러 추장들은 그의 당당한 태도와 지략에 감복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선조 29년 이항복이 적중의 사정과 정사(正使)가 탈출한 곡절을 조정에 알리기 위해 적중을 왕래한 정충신과 함께 대궐에 왔다는 사실이다. 정충신은 이때 부산의 왜영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선조 39년에는 변방의 여진족의 동태파악을 위하여 정충신이 파견되어 그가 작성한 문견록(聞見錄)에 의하여 정책을 논의하였다. 광해군 2년에는 북방 오랑캐 노추의 동정을 살피는데 보을하첨사(甫乙下僉使) 정충신의 치보가 큰 역할을 하였고, 광해군 11년에 드디어 오랑캐의 사절로 뽑혀 노추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중병에 걸려 무산되었다. 그 후로도 광해군 13년 여진과의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광해군대 북방외교를 이끌었다.

1623년(인조 1) 안주목사로 방어사를 겸임하던 무렵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도원수 장만(張晩)은 정충신을 불러 대책을 상의하였다. 이때 그는 삼책(三策)을 말하고, 이괄은 셋길로 경도(京都)를 취하는 하책을 쓸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말이 적중하였다. 안현에 먼저 진을 치고 기다리다 이괄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개가를 이루어냈다. 이때의 공으로 진무 공신(振武功臣) 27인중 장만(張晩)·남이흥(南以

興)과 함께 1등에 세 자급(資級)을 올려 받았고, 금남군(錦南君)에 봉해졌다. 그 후로도 인조조 국방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정충신이 있었다.

1624년(인조 2) 7월 조정에서는 평안병사 자리를 놓고 천거를 하는 기록이 있다. “정충신이 이 직임에 적합할 것이다.”라고 하여 평안병사에 제수하였다.

평안병사 정충신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였으나 또다시 병으로 인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인조는 정충신을 위해 어약을 하사하는 등 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보여줬다.

정충신의 활약은 정묘호란에서도 빛을 발하였다. 청 군대의 진로였던 평산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목책을 설치하며 대비하여 결국 청 기마병이 퇴각하도록 하였으며, 용골성에서 청나라 병사들을 물리쳤고, 의주에 머물고 있는 청군의 현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때 정충신은 신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하여 인조 5년 9월에 포상을 받았다. 그 후로도 부원수 정충신은 국방의 안전을 돌보는 직책에 있으면서 외적의 동태를 살피고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했다.

1633년 조정에서 후금에 대한 세폐를 거절하고 청과 절교할 것을 결정하여 이 사실을 청조에 알리려고 김대건을 사신으로 보내자 정충신은 재고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당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장연으로 이배되었다. 그러나 곧 유배에서 풀려나와 포도대장·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는데, 병이 심해져 1636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천문, 지리, 복서, 의술 등 다방면에 해박하고, 청렴하기로도 이름이 높았다. 문집은 《만운집》이 있고, 저서로 《백사북천일록(白沙北遷日錄)》, 《금남집(錦南集)》 등이 전해진다.

정충신이 지곡면 대요리의 진중사에 배향된 것은 묘소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금성 정씨는 전라남도 광주에 세거하고 있었는데, 정충신이 1633년 당진에 유배된 인연으로 말년을 서산 대신에서 은거하다가 대요리의 지세를 살펴보고 묘소를 정하면서 그 자손이 이 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다. 이는 정충신의 유사(遺事) 중 1633년(인조 11) 전리(田里)에 방귀(放歸)되어 있을 때 서산 마힐봉(현재의 국사봉) 아래의 한곳을 정해놓고 자제들에게 반드시 이곳에 장사 지내라고 한 말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대요리 일대는 이괄 집안의 땅이었는데, 정충신이 이괄의 난 진압에 공을 세운 후 이 지역을 사패지로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충신의 유언대로 대요리 국사봉 산록에 묘소를 정하고, 대요리에서 금성정씨 집안의 가계를 이은 것은 정충신의 아들 반(槃)·빙(碇)·문(稔) 3형제 중 차자인 정빙(鄭碇)이었다. 정충신이 죽은 뒤 29년 만인 1685년(숙종 11)에 충무공(忠武公) 시호를 받고, 영정과 위패를 종손이 보관하면서 제향을 드렸는데, 한 때 도난당하기도 하는 등 보관이 허술하여 당진 정미면에 거주하던 5세손 정세오(鄭世奧)가 사당을 지었다가 1897년 9세손 정세칠(鄭世七)이 현위치인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로 이건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중수와 개축을 했고 이 같은 단장을 통해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06호로 지정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우내에 영정, 투구, 갑옷, 향합, 향로 서군사령기 등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

※ 출처 : 서산의 문화유적

※ 332호(6월호) 8P 첫째줄 인지면 둔당리를 인지면 애정리로 수정합니다.

서산의 봉수 (烽燧)

우리가 알고 있는 봉수시설은 봉과 수가 합쳐진 말이다. 봉(烽)은 불빛으로 밤에 수(燧)는 연기로 낮에 신호했던 통신체계이다. 문헌상에서 봉수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중국 주나라 이후로 서주시기 견용의 침입에 대비 여산에 봉화대와 대고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이후 한대에는 국가중요체계로서 봉수제도가 엄격해지고 전시기에 비하여 정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국사기』·『삼국유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데,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햇불을 신호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본격적인 봉수제가 설치된 것은 고려 중기이다.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좀더 구체적인 봉수체계가 운영되는데, 북의 여진족, 남방의 왜구에 대한 방비로서 세종 28년(1446)사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봉수법이 제정된다.

문헌상에 나오는 서산지역의 봉수시설을 살펴보면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동국여지지』, 『호서읍지』에는 북산봉수(北山烽燧)¹⁾, 도비산봉수(都飛山烽燧), 고구성산봉수(高丘城山烽燧)²⁾가 있다. 이들 유적은 현재도 형태가 남아있으며, 북산봉수는 최근 발굴조사를 하여 조선시대 만들어진 봉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도비산 봉수대)

봉수유적들을 살펴보면 먼저 도비산봉수(都飛山烽燧)는 해발 340m의 도비산 정상부에 있는데, 정상부에 올라서면 사방을 한 눈에 관망하기 좋은 위치로 시계가 양호하다. 도비산봉수(都飛山烽燧)는 고구성산봉수와 태안의 백화산봉수와 연결되는 신호 체계를 갖춘다. 봉수시설은 직경 약 10m 정도의 원형으로 약 2m 정도의 높이로 남아있다. 봉수대의 주변으로는 너비 50cm 정도의 U자형의 호를 둘러쌌다. 주변의 봉수의 부속시설로 추정되는 창고와 같은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기지국이 들어있어서 일정부분 유적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지 주변에서는 고려시대 토기편과 조선시대 기와편이 확인된다.

고구성산봉수(高丘城山烽燧)는 고북면 신송리에 있는 봉화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봉수지는 직경 6~7m 크기의 원형 웅덩이만 확인되는데, 봉수시설로 추정할 수 있다. 봉수의 주변에서는 봉수와 관련된 시설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확인되며, 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이 확인된다. 고구성산봉수는 서쪽으로 도비산봉수와 연결된다.

북산봉수(北山烽燧)는 1872년 만들어진 고지도에 표시될 만큼 봉수 본연의 기능을 간직한 채 오랫동안



학예연구사
이 강 열

01) 조선시대 발간된 각종 지리지에는 북산봉수와 주산봉수로 표현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과 『東國輿地志』에는 북산봉수로 『世宗實錄地理志』 『輿地圖書』 『湖西邑誌』에는 주산봉수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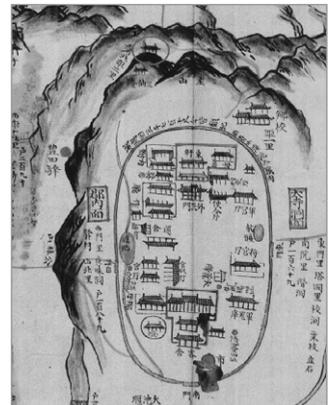
02) 고구성산봉수는 원래 홍주목 관할이었으며, 해미안국산 봉수는 지금의 당진군 정미면에 있는 봉수로 현재 관할구역에 있는 봉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아 있던 유적이었다. 고지도에서 보면 서산읍성의 북쪽에 있는 주산의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에 집이 한 채 표기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북산봉수이다.

그동안 북산봉수는 오래전부터 부춘산 정상부 체육시설내에 있는 옥녀봉 산신당이 봉수터라고 알려져 왔다. 2006년도에 전망대 시설공사를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봉수터가 확인되었는데, 서광사 뒤편의 해발 198m의 봉화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것이 새로이 밝혀졌다. 고지도에서 나오는 지역과 일치하는 곳이다.

북산봉수의 발굴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되었던 도비산봉수나 고북성산봉수의 구조에 대한 일정부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³⁾ 북산봉수의 발굴조사 된 내용을 토대로 유적의 조성연대나 구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는 조선시대 연변봉수의 연대 호와 수혈유구 4기, 그동안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성벽의 석축시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연대(烟臺) 호(壕)는 봉수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동서로 긴 타원형으로 호 안쪽에는 석축시설이 있다. 연대 호의 제원은 남북으로 19.28m, 동서로 23.68m, 호는 단면 U자형으로 제원은 폭은 1.65~3.45m, 깊이는 52~103cm이다. 호는 단면 U자형이며, 안쪽면에 방형에 가까운 할석을 1~3단 쌓았다. 할석이 없는 동쪽부분은 연대로 출입하기 위한 가교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의 내부에서는 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기와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는 부정형의 형태를 띠는 형태로 내부에는 석재들이 들어있고, 2호로 명명된 유구에서 부뚜막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성벽시설이 확인되었는데, 트렌치 조사를 통한 조사이므로 유적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벽은 성벽을 통과하는 부분을 I자로 정지하고 수직의 높이로 성토하고 성토된 흙의 앞쪽에 석재를 수직으로 쌓아올렸다. 성벽은 석축높이 1.6m내외이며, 성토층을 포함한 높이 2~2.5m, 성벽의 폭은 5.9~6.5m이다. 이 성벽은 봉화산, 부춘산, 옥녀봉의 3개 봉우리를 연결하며, 사이의 계곡을 포함하여 잔존둘레 1,558m의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의 축조연대는 고려후기로 추정된다.



(고지도 북산봉수 파란부분)

주변에는 봉수관련 부속시설의 추정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가 확인되었다. 기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기와가 수습되었다. 이들 봉수유적들은 향후 복원을 통하여 좋은 문화재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북산봉수 현황)



(북산봉수 복원도)

03)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瑞山 主山烽燧』의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조사를 통해 북산봉수는 1447~1454년 사이에 조성되고, 조선시대 옥천 화산봉수에서 시작하는 제5기 간봉(2)노선의 11번째 연변봉수이다. 북산봉수는 태안의 백화산봉수와 연결되어 서해안 일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브랄타 해협을 횡단하다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스페인의 4대도시 중 하나인 세비야에 매료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집시와 플라멩고의 낙원으로 알려졌고 우리민족과 흡사하게도 많은 전쟁의 역사를 겪은 민족이고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기에 사람들의 표정 하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폈다.

플라멩고는 집시들에 의해 완성된 유럽음악 형태중의 한 장르를 이룬다. 15세기 스페인 남부에 정착한 집시들이 모로코,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들만의 음악으로서 스페인 남부에 정착된 것이다. 정렬과 격정의 춤사위, 보는 사람과 시선을 맞추면서 관객의 혼을 빼놓는 듯 강렬한 눈빛, 신들린 듯한 음악과 춤으로 펼쳐지는 플라멩고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평원의 도망자인 집시들, 그들의 고단한 삶속에서 어찌 이토록 아름다운 문화를 이뤄냈을까...

유럽의 3대성당인 스페인 최고의 카테드랄 성당을 관람했다. 성당의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내부의 화려하면서도 전혀 천박하지 않은 우아하고 높은 격조감에 압도되어 전율을 느끼게 된다. 세세한 장식들의 예술성과 조화로운 건축구조와 장식물들의 고급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버스 무덤을 4명의 왕이 어깨에 메고 있는 조각을 보며 발견의 왕다운 대우를 받고



카테드랄 성당

있구나 하면서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 또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의 무덤을 대통령의 어깨로 뒬 수 있을까 씩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강가에는 황금의 탑, 마리아 루이사 공원과 아름다운 분수, 야자수가 가득한 공원, 광활한 스페인 광장 등이 역사적인 시설물들과 잘 조화되어 질서를 이루고 있었다.

드디어 여행 4일째를 맞으며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는 날이다. 세비아에서 항구 도시 타리파까지는 약 3시간 소요된 것 같다.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은 1시간정도 걸렸다.

라바트에서는 모하메드 5세 묘를 관람하고 왕궁은 밖에서 걸모습만 보는 것으로 끝냈다.

탕헤르에서 먹은 점심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거북스러워 기분이 짹짹했다. 식단 분위기가 깔끔치 못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마도 마음에서 오는 소화불량인 것 같다. 그래도 말로만 듣던 아프리카 땅에 발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뛰는 일이다.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의 만남은 한마디로 별로였다. 유럽스럽지도 못하면서 또한 상상했던 아프리카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에 정이 가질 않는다. 그래도 탕헤르는 지중해의 관문이며 지브랄타 해협을 끼고 있어 지중해의 꽃이라 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한가롭게 나무그늘에서 쉬고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같았다.

아프리카의 첫날밤은 카사블랑카로 정했다. 영화나 노래 속에서의 카사블랑카는 화려하고 낭만적이고 자유분방한 도시 같았는데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가이드가 겁주는 바람에 밤거리 구경은 엄두도 못 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가이드의 말은 모두가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재래시장을 보고 싶다 해도 쇼핑을 하고 싶다 해도 밤풍경을 보고 싶다 해도 모두가 안 되는 것 뿐이었다.



스페인 광장



카사블랑카 - 모하메드 광장



카사블랑카 - 핫산의 모스크



톨레도



라바트에서는 1시간 거리였으니 우리나라 서울과 인천처럼 이곳 카사블랑카는 바닷가에 자리 잡은 환상의 도시임에는 틀림없는 듯 했다. 호텔이나 건축물들이 유럽 수준을 근접했다. 그러나 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다. 모로코 최대의 상업도시라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침 식사는 호텔식으로 끝내고 모하메드 5세 광장과 핫산의 모스크를 탐방했다. 모로코하면 카사블랑카, 아라비아의 로렌스, 오델로 등 할리우드의 많은 영화가 모로코에서 상당부분 촬영된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인접해있고 기후가 여타 아프리카와는 달리 쾌적하여 프랑스,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 등이 영화제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흑인도 백인도 아닌 아프리카 속의 유럽 모로코인들이다.

모로코의 북쪽은 지중해 동남쪽은 알제리, 남서쪽은 사하라 사막, 서쪽은 대서양에 면하여 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이고 이슬람교도가 많았다. 목축업과 농업이 발달하였다지만 버스를 타고 계속 농경지를 살펴보니 미개하기 그지없었고 토지의 대부분이 왕궁의 소유라서 북한의 협동농장 경작하듯 하니 수확량이 많을 수가 없음을 한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다시 이동하여 페스의 1,000개의 골목길 시장을 갔다. 현지 가이드를 놓치면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다는데 천개의 골목길을 어찌다 외우겠는가. 가죽공장이 유명했고 옷감을 만들고 각종 물건들을 제공하는 장인들이 가게와 골목길에 즐비했다. 전통방식을 고집하며 수공예를 하는 그들의 문화가 더욱 값지게 비춰진다.

역시 이곳에서도 쇼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가이드에게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한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았으면 현지인들이 왼쪽 오른쪽 등 한국말로 계속 지껄여준다.

페스에서 탕헤르까지는 4시간 반 정도 걸렸다. 오늘도 하루종일 버스를 타는 날이었다. 탕헤르의 밤은 길고 외로웠다. 잠을 설치고 아침식사를 대충 때우고 항구에 도착하니 바람이 세계 불어 겨우 출항을 했고 배는 2천톤급의 작은 페리호였는데 작은 파도에도 많이 흔들려 많은 사람들이 배멀미에 고통스러워했다. 다시 스페인 최남단 타리파 항에 도착 4시간여 끝에 그라나다에 도착했다. 샌안톤이라는 호텔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역시 저녁식사는 별로다.

감기 기운 때문에 또 다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 샤워 도중 바닥이 미끄러워 크게 넘어졌다. 영치에 멍이 들고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서 혼자서 끄끙거리며 참아내고 있었다.

오늘은 알함브라 궁전 하나 본 것 밖에는 별 기억이 없다. 아랍 양식으로 건축된 궁전인데 내부를 면밀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안타까웠다.

7일째 되는 날이다. 오늘은 웬지 굉장한 것을 볼 것 같은 예감에 아침부터 기분이 상쾌했다. 아침 8시부터 버스를 타고 톨레도로 향했다. 스페인의 역사와 숨결이 고이 담겨 있다는 옛 수도 톨레도를 본다는데 흥분되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그 톨레도는 역시 천연적인 요새였다. 도시를 중심에 두고 원을 그리며 강물이 깊게 흐르고 높은 절벽으로 궁전을 감싸면서 물과 절벽으로 자연스럽게 성을 쌓고 있는 요새였다.

건물들도 천년의 역사를 조망해주는 듯 고색찬연했다. 건축물들의 색깔을 자연색을 택하여 친근함을 주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게 했고 한없는 시간속을 여행하는 듯 착각을 주게 했다.

현재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스페인의 영광이 여기서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에 잠기며 그 옛날이 난공불락의 수도를 감히 어느 군대가 넘볼 수가 있었을까. 역시 이베리아 반도를 점수한 스페인의 잠재력을 느끼게 한다. 스페인의 영광은 잠시 생각뿐이었고 우리나라 역사의 비통함에 한스러움이 느껴진다.

톨레도에서 마드리드까지는 2시간쯤 걸렸다. 마드리드는 역시 스페인의 수도다운 멋스러운 도시였다. 오래간만에 한국식당(레스토랑 코리아 한강)에서 밥과 김치맛을 봤다. 김치맛은 형편없었지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생선 매운탕도 먹어보고 입맛이 다시 살아남을 느낀다.

오늘 마지막 쉬어갈 호텔은 알메나라는 중류급 호텔이었다. 밤에는 모두 모여 술 한잔으로 회포를 풀면서 환담을 나누고 느낌을 얘기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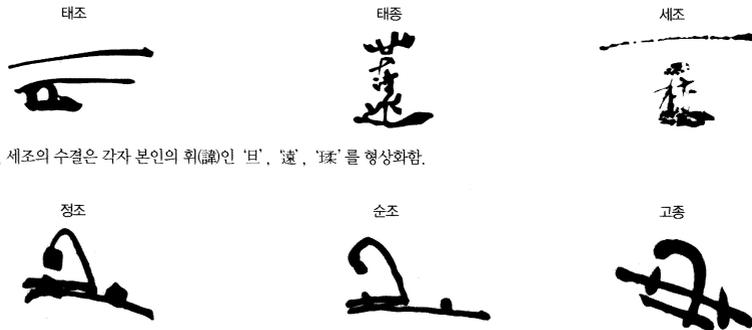
여행은 일주일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루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이젠 내일 아침이면 귀국 길인데 모두 내려놓고 마음 편히 마지막 밤을 맞으리라.

수결 手決

● 수결이란?

글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형시켜 만든 서명(Signature)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문서를 작성하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음을 표시할때 수결을 하였으며 수례(手例)·화압(花押)·착명(着名)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수결은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달랐으며, 그 구분도 매우 엄격하였다. 특히 임금의 수결을 나타내는 어압(御押)은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졌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도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 조선왕조 국왕 수결의 의미



태조, 태종, 세조의 수결은 각자 본인의 휘(諱)인 '근', '운', '륜'를 형상화함.

정조, 순조, 고종의 수결은 모두 '心'을 변형한 형태로 이루어짐.



조선왕조 국왕의 수결 Kings' Signatures of the Joseon Dynasty

태조(太祖) Taejo
第1代(1392-1398)

태종(太宗) Taejong
第3代(1400-1418)

세조(世祖) Sejo
第7代(1455-1468)

정조(正祖) Jeongjo
第22代(1776-1800)

순조(純祖) Sunjo
第23代(1800-1834)

고종(高宗) Gojong
第26代(1863-1907)



역대 대통령의 서명 The Signatures of the Former Presidents

이승만(李承晩)
Rhee Syng-man
第1~3代(1948-1960)

윤보선(尹潽善)
Yun Po-sun
第4代(1960-1962)

박정희(朴正熙)
Park Cheong-hee
第5~9代(1963-1979)

최규하(崔圭夏)
Choi Kyu-hah
第10代(1979-1980)

전두환(全斗煥)
Chun Doo-hwan
第11~12代(1980-1988)

노태우(盧泰愚)
Rho Tae-woo
第13代(1988-1993)

김영삼(金泳三)
Kim Young-sam
第14代(1993-1998)

김대중(金大中)
Kim Dae-jung
第15代(1998-2003)

노무현(盧武鉉)
Roh Moo-hyun
第16代(2003-2008)

• 출처 : 국가기록원 • 제공 : 박상원(대전시)

암행어사 실제론 어땠을까?



암행어사가 등장한 MBC드라마 <짜패>

사극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 중 하나는 암행어사의 등장이다. 신분을 숨기고 남루한 차림으로 암행하던 이몽룡이 병졸들과 함께 나타나 악질 사또 변학도의 생일상을 뒤엎고 옥에 갇힌 성춘향을 구하는 <춘향전>의 명장면은 보고 또 봐도 지루하지 않다. 지난 5월 24일 중영된 MBC <짜패>에서도 암행어사가 등장하여 탐관오리를 멋있게 혼내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어사는 진짜가 아닌 가짜였다. 의적들이 어사 일행을 가장해서 전라도 고창 관아를 습격했던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행어사는 그야말로 조선 시대 특유의 제도였다. 어사가 처음 파견된 것은 제11대 중종(재위 1506~1544년) 때였다. 어사는 주로 종3품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임명되었다. 종3품은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행정기관 국장과 과장의 중간 정도였다. 학자 스타일의 관료들이 포진한 사헌부(검찰청), 사간원(감사원), 홍문관(문서관리 및 자문 담당)에서 어사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사료를 통해 이 제도의 실상을 살펴보면, 사극에 나오는 암행어사와 실제의 암행어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도의 실상을 보여줄 만한 사료 속의 몇몇 장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00% 암행은 불가능했다** : 어사 파견은 은밀히 이루어져야 했지만 100% 비밀유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경우 삼정승 즉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추천에 따라 주상(왕의 공식 명칭)이 어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부터 비밀이 일정 정도 샐 수밖에 없었다. 주상이 추천 없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도 승정원(비서실) 직원들이 파견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어사의 인적사항이나 목적지가 사전에 누설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누설된 정보들을 모아서 지방

관청에 전달해주는 스파이들도 있었다. 뒤에 나올 사례에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

○ **어사가 뜨기 전에 지방에서 미리 알았다 :**

어사의 임명과정에서부터 비밀이 새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지방 관청에서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어사들은 폐포파립(弊袍破笠) 즉 헤진 옷과 부서진 갓을 착용하고 과거시험 낙제생 행세를 하면서 도보로 이동한 데 반해, 한성에 있던 지방 관청의 스파이들은 말을 타고 신속히 이동해서 어사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아무래도 어사보다는 지방 수령들이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

중종 29년 5월 14일(1534.6.25) 조정에 올라온 경상도 암행어사 오세우의 보고에 따르면, 그가 옥포성(지금의 거제도 옥포동)에 당도하자 그의 얼굴을 확인한 경비병들이 성문을 즉각 닫아걸었다. 오세우가 온갖 방법으로 타일러도 경비병들은 들은 척도 안했다. 경비병들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겨우 성문을 열어주었다. “어사가 떴다!”는 첩보를 관아에 전달하고 관아에서 관련 자료를 숨기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오세우는 성문 입구에서 대기해야 했던 모양이다. 경비병들이 오세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성문을 닫아걸었다는 것은 옥포 관청에서 오세우의 인상착의까지 미리 확보해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성에 있는 스파이들이 현지 관청에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례는 실록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오세우의 사례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어사의 회유와 엄포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퐁퐁 닫아두고 아예 열어주지도 않은 고을이 많았다. 그런 경우 암행어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포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었다.

○ **임지에서 어사의 일거일동이 날날이 체크됐다 :** 폐포파립 차림의 어사들은 “과거시험에

낙방하고 세상을 유람하는 선비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임지를 돌아다녔지만, 이런 옷차림과 행동은 도리어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곤 했다. 옷차림은 남루하지만 눈망울만큼은 또랑또랑한 젊은 선비가 “이곳 사또는 청렴합니까?”, “세금을 과하게 걷지는 않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하고 다녔으니, 어느 누군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지방에서는 “암행어사로 의심되는 선비가 우리 고을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삼시간에 퍼지곤 했다. 대부분의 경우, 어사의 향후 이동 경로에 관한 소문까지 상세히 퍼지곤 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내용이 조선 후기 민담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
어사 이외의 관료들도 마패를 이용했다.
사진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국사」



(조선시대의 지방 성문)
사진은 김해읍성의 복문. 경남 김해시 동상동 소재

집인 장한중의 『어수신화』에 담겨 있다. 『어수신화』에는 “폐포파립 행색을 한 거지가 관아 앞에서 구걸했다”는 보고를 듣고, 혹은 “말을 타고 시종을 거느린 한성 사람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듣고 얼굴이 잿빛이 되면서 “이건 필시 암행어사야!”라며 긴장하는 지방 수령의 모습이 나온다. 그만큼 지방 수령들이 암행어사의 존재에 대해 항상 긴장하고 경계했기에 이런 분위기가 민담에까지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 정도였으니 지방수령들이 어사의 일거일동을 낱낱이 체크하는 게 당연했던 것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지방수령들은 어사로 의심되는 이방인에게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두었던 셈이다.

○ 「**춘향전**」 식의 **암행어사 등장은 드물었다** : 어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암행어사 출도(出道)’라고 했다. ‘출도’는 어사의 직무가 ‘암행 상태’에서 ‘공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켰다. 지방 관리나 주민들 앞에서 봉서(임명장)나 사목(직무 가이드)을 제시하는 것을 출도라고 했다. ‘출도’를 출두(出頭)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어사전에 서조차 그런 오류가 나타난다. 하지만 사료 상으로는 분명히 ‘출도’가 맞다. ‘부조금’이 ‘부주금’으로 발음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출도’가 ‘출두’로 오해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암행어사 출도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춘향전』에서는 이몽룡이 남원군청 입구에서 부채를 들어 신호를 보내자, 육모 방망이와 채찍을 든 병졸들이 마패를 번쩍 쳐들고 “암행어사 출도요!”라며 청사에 난입하여 수령 집무실인 동헌을 뒤엎고 일대 수라장을 만들었다. 실제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순조 22년 윤3월 16일(1822.5.8) 평안남도 암행어사에 임명된 박내겸의 견문록인 『서수일기』에 따르면, 거리에서 병졸들이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치자 사람들이 놀라 도망가고 집안 조명이 꺼지고 관청 건물이 텅 비어졌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문 편이었다. 정조 7년 11월 10일자(1783.12.3) 『정조실록』을 읽어보면, 어사 출도가 상당히 ‘싱겁게’ 이루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강원도 암행어사 조홍진에 대한 업무지시에서, 정조는 “길에서 유랑민들을 만나게 되면 즉시 출도하여 조정의 구휼의지를 밝히고 일일이 위로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의 의미는 유랑민들을 만나면 어사의 신분을 밝히고 조정의 복지대책을 설명해 주라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대규모 병졸들을 동원하여 유랑민들을 에워싼 뒤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처럼 출도는 어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관청에서 출도하는 경우에는 관청 입구에 있는 병졸들에게 신분을 밝히는 수준이었다. 그런 뒤에 어사는 청사 안에 들어가 문서를 열람하고 창고나 감옥을 확인했다. 드라마에서처럼 요란스러운 출도 장면은 그야말로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했다.



글쓴이 소개

김 종 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양사 전공 박사수로
-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한국사 인물통찰’ 강의 중
-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TV 속 역사읽기’ 연재 중
-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연재 중

“문화는 삶의 전체이며 교육은 백년이요, 문화는 천년”

금현 류방택기념사업회 김현구 회장



현대의 서산지역을 위해 애쓴 사람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현구 전 서산문화원장이다.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을 서산문화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김현구 원장으로 부른다.

지금은 국보 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라는 천문도를 만든 인물로 서산지역의 자랑이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고 있는 금현 류방택 선생을 현창하는 ‘사단법인 금현 류방택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 회장은 80평생을 돈 버는 일보다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맨처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농촌이 잘살아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순수한 농촌운동이었습니다. 4H운동부터 재건운동(5.16후), 농업협동조합의 탄생에 앞장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죠. 당시에는 농협이 리별 단위조합으로 있었는데 읍면단위조합으로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이것이 오늘날 농업협동조합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현구 회장은 이러한 공로로 박정희 대통령 내외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서 격려를 받았던 일이 생생하다고 회고 했다.

그는 그후 선진 외국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며 약초를 이용한 예방의학에 눈을 떴다.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그의 생각은 지금은 대체의학 등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당시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적인 발상이었다. 생강, 약초 등을 이용한 생약조합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산군청의 특수시책의 일환인 특화사업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꿈은 화마와 함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큰 불로 가공공장과 집기 등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

그렇다고 낙담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지역문화운동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그의 열망으로 1983년 제2대 서산문화원장하게 취임하게 되었다. 문화원장으로 취임하고 제일먼저 문화원의 위상을 높여야 지역문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당시 문화부 문화시책위원으로 발탁된 그는

‘지역문화원진흥법’ 제정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2년여의 고심 끝에 마련된 초안이 정부에 제출되어 문화원이 임의 단체에서 사회단체화(5.16후)되고 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비영리공익문화사업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충청남도문화예술인 대회를 창설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한 결과분석과 도내 예술인들간의 만남의 장을 통한 교류활동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김 회장은 서산문화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민속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우리지역의 문화상을 체계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서산 민속지와 서산태안문화유적지를 간행한 일이고 또한 1992년 유네스코 주최 전국문화원 간행물 평가에서 ‘스산의 숨결’이 대상을 수상한 일입니다. 이들 간행물은 영국 옥스퍼드대학, 미국 하버드대학, 중국 연변대학 등에 소장되어 우리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역대표축제의 개발과 활성화입니다. 1987년 실시된 제1회 서산문화제는 주한 외교사절이 40여명이 참석하는 등 대내외로 주목을 받으며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그런데 격년제로 치러지고 게다가 시·군이 분리되고 지지부진하였죠. 당시 정부는 유사성축제는 통합하고 축제를 특성화하는 시책을 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산에 맞는 축제가 무엇인가 고민끝에 배재대에 용역을 의뢰 2년여의 연구결과 탄생한것이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입니다. 체험이 있는 축제는 이 축제가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는 전국에서 12개를 뽑는 민속대표축제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런 축제가 요즘 이름도 바뀌고 계속 특색 있게 발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번째는 문화활동을 하자면 공간이 필요한데 서산문화원은 문화공간이 없었죠. 원사와 함께 지역 문화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흡족하진 않지만 문화원사를 마련하여 전국최초로 지역문화학교(향토학교)를 만들어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고 문화해설사 교육을 실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문화원은 여러 가지 차이가 심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의 문화원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중심권에서 가까이 있는데 우리 농촌문화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이 전국 최초의 문화원 분원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읍·면에 분원을 설치 전시, 세미나 등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문화활동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데서 착안하여 회원확대운동을 실시, 1,38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문화원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공이 인정되었는지는 몰라도 2001년 전국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짓지 못했지만 부족함대로 문화원 3층에 향토사료관을 만들어 백제시대 유물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열거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기고 떠났다.

“전국 회의에 가면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위인이 없어 내 자신이 위축되었어요. 인근 아산에는 이충무공이 있어 그분을 선양하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는데 서산에는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금현 류방택 선생을 알게되어 금현 선생을 현창하는 일에 매달렸다. 장영실, 홍대용은 알아도 우리나라 천문우주과학의 선도자였던 금현 류방택 선생은 잘 모르고 있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전국의 천문우주학자를 만났다. 12명의 천문우주과학자를 만났는데 류방택에 대한 자료가 빈약했다. 결국 한국천문과학사 학회장을 만나 금현 류방택 선생이 우리나라 천문우주과학 발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므로 연구와 업적 고증을 부탁했다. 그때부터 연구와 자료를 찾다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4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금현 류방택 선생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류방택 선생에 대한 새로운 업적과 사실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천문연구원에서도 깜짝 놀랐고 국제천문학회에 보고 되었고 이와 함께 류방택 별 헌정이 이루어져 우주에 빛나게 된 것이라는 것. 금현 류방택 선생이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국보 228호로 지정되었고 민족문화 100대상징물, 일만원권 지폐 뒷면을 장식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금현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발굴하고 현창하는데 미친 듯이 뛰어다닌 결과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류방택 별 축제를 매년 개최하였고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송곡사 주변에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 건립되어 초대 관장으로 근무하고 지난 6월 30일 퇴임했다. 우리가 보통 지구 300킬로미터 이상을 천문, 그 이하는 기상이라 지칭하는데 금현 류방택 선생은 천문, 기상을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천문기상과학관으로 했다. 류방택 선생은 우리나라 기상대장, 천문대장의 시조인 셈이다.

“금현 선생의 영정이 9월 국가 심의를 마치고 영정각을 지어 모셔지면 동상과 우표, 엽서, 흉상 등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고 이런 선양사업을 통해 금현 선생에 대한 업적과 공을 후세들에게 각인시켜 현재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권근 외 11명이 만들었다고 기술된 것을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류방택이 만들었다고 고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김 회장은 “송곡사 일원을 국제적인 인물이고 서산이 자랑할만한 우주과학자로 알려진 금현 선생의 유적으로 만들어 성역화하고 관광객이 찾아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주시대에 맞는 우주체험센터로 만들고 싶다”고 밝힌다.

“문화는 전승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고 창작하며 발전적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이요, 문화는 천년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김회장은 문화의 중요성과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 자신을 욕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금현 선생같은 인물을 현창하고 지역의 큰 인물을 알리는 사업을 폄하하거나 반대하는 일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김회장의 바람대로 서산의 인물인 금현 류방택 선생에 대한 현창사업이 결실을 맺어지길 바란다. 언제나 그랬듯이 80이 넘는 노년임에도 선진적 사고와 통찰력,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만은 젊은 사람들도 배울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터뷰하는 내내 느꼈다.

〈글 : 유 병 인〉



우리민족과 함께 지내온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

서산시문화관광해설사 정명재

서산마애삼존불상(瑞山磨崖三尊佛像)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의해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瑞山龍賢里磨崖如來三尊像)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는 세월속에 머물고 흐르는 세월에 순응하며 남긴 자취는 역사가 되어 후세에 전해진다. 사람은 태어나 늙어 천수를 다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드린다.

천사백여년전 이 세상을 다녀간 선인(先人)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킨다. 역겹을 견딘 바위도 세월을 거슬리지는 못했다.

여기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미소에 감탄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인간미 넘치는 미소에 취해 근심걱정으로 주름진 얼굴을 잠시나마 활짝 펴본다.

600년경 백제의 불모(佛母)에 의해 바위 속에서 찾아낸 마애여래삼존상은 각기 다른 미소로 날마다 새로운 미소를 보여준다. 꽃처럼 활짝 피어난 미소, 꽃봉오리처럼 가득 머금은 미소, 엄마를 보고 웃는 것처럼 천진스런 미소, 이 삼존상의 미소가 조화를 이루어 천년이 넘는 세월을 날마다 새로운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 같지 않은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은 그 자리 잡은 바위

마저 예사롭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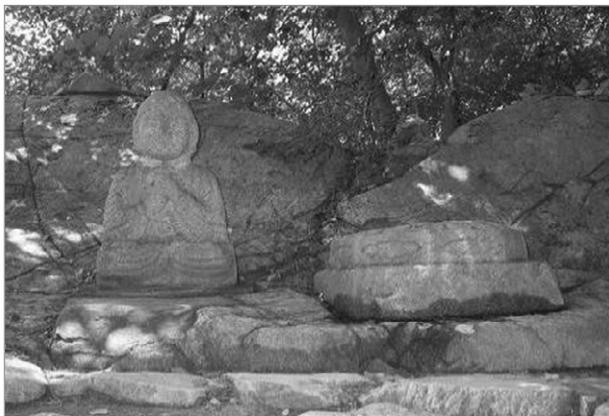
앞에는 병풍바위산이 둘러쳐 세찬 바람 막아주고, 하늘을 가르고 내리치는 폭우는 추녀바위가 막았으나 세월까지는 막지 못한 모양이다.

군 의(裙衣) 통견(通肩)이 해지고 미소 띤 얼굴이 여기 저기 패여 1,400여년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 세월의 무게에 깨어지고 퇴락한 주변의 바위에서 처음 조성했을 때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거대한 동근 화강암의 동쪽에서 암굴을 파고 들어가 불상을 조각할 곳은 평평하고 80도의 기울기로 다듬은 면에 여래삼존상을 새겨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려졌고 동쪽에 비바람 막이를 만들었다. 80도의 기울기는 찾아오는 중생을 허리 굽혀 맞아주며 또 비가 얼굴에 직접 때리는 것을 막도록 한 모양이다. 이러한 기법에서 흔하게 보기 어려운 백제인의 지혜를 엿 볼 수 있게 한다.

보는 이 마다 미륵반가사유상의 왼쪽 팔을 보고 속상해한다. 관광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미륵반가사유상의 왼쪽 팔이 왜 저렇게 떨어져 나갔느냐는 것이다. 누군가 훼손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얼마 전 이곳에서 거주하셨던 문 선생님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6.25당시 미처



도망치지 못한 인민군이 가야산에 숨어들어 밤이면 먹을 것을 찾아 마을에 내려와 민가에서 잠을 잤고 그 바람에 마을사람들은 인민군을 피해 밤마다 고향리로 내려와 밤을 지냈다고 한다.

마애여래삼존상 근처의 큰 소나무위에 숨어 있는 인민군을 발견, 교전을 벌일 때 충격에 의해 미륵반가사유상의 왼쪽 팔이 훼손되었고

그 팔꿈치 안쪽의 흔적이 바로 총탄을 맞은 곳이라 한다.

서산용현리마애삼존상은 1,400여년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말없이 지켜왔

다. 6.25한국전쟁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수많은 희생자를 냈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했다. 마애여래삼존상도 그 전쟁의 참화(慘禍)를 비껴가지는 못한 모양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광객에게 올바르게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홍사준 부여박물관장이 보원사지 유적조사를 왔다고 한다. 호기심으로 관장님을 따라다니며 도와주었고 냇가에 굴러다니던 유물을 찾아 알려드려 부도의 기단석으로 확인, 여래삼존상 앞 길목 지금의 제자리에 홍사준 관장님의 지시로 올려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옆에는 비로자나불이 모셔졌다.

이곳에서 거주하다 수원으로 이주한 60대의 관광객을 만났다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어 선친께서 들려준 그 비로자나불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보원사지 5층석탑 옆에 있던 불상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옥돌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으나 이 옥관은 일제강점기에 도난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이 비로자나불상을 알고 있던 관광객 중에는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시 찾아온 관광객은 이 불상이 왜 없어졌느냐 그리고 어디로 옮겼느냐고 묻는다. 한적한곳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비로자나불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다. 이 불상은 고려중기의 불상으로 이곳 관리인이 보원사지에서 옮겨놓았는데 2005년 3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도난당하여 현재 문화재청에 도난문화재로 신고 되어 있다.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하는 한편에서는 옥관을 빼앗아가고 부수고 훔쳐 팔아넘겨 거주의 자유까지 짓밟는 현대인들이 흐르는 세월, 세차게 때리는 폭풍우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일지 모른다.

옛날엔 옥관을 쓰고 보원사를 지키던 비로자나불, 5년 넘게 타향살이 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이 하루속히 고향에 돌아와 관광객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협조 : 서산시 석림동 302-69 문경희(전 교육공무원정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60-8 김년환 (과천문화원추사연구회 임원)
서산시 운산면 용현2리 지연수 (수림가든대표)



아이 미술관은 충남 당진군 순성면 성북리 160-1번지에 자리 잡은 미술관이다. 프랑스에서 공부한 박기호, 구현숙 미술가 부부가 18년 동안 폐교(유동초등학교) 구석구석을 손수 가꾸어 지난 6월 4일 개관했다.

충청남도에서는 6번째 등록된 사립미술관으로 교실 3개짜리 교사와 4개짜리 교사가 서로 연결돼 길게 뻗어 있다. 80여m로 이어진 복도는 중세 수도원이나 궁정의 화랑을 연상케 한다. 벽과 천장모두 하얗게 칠하고 서까래는 그대로 노출 시켰는데, 원목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서까래가 미니멀한 공간에서 독특한 조형요소가 됐다.

당진 터미널에서 자동차로 7분 거리에 있는 미술관은 도로변에 있는데도 길가에서 보이지 않는다. 아이산을 앞으로 한 천혜의 장소

에는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다. 겨울에는 눈꽃, 봄에는 진달래, 여름 꽃들, 가을단풍 등 다양한 꽃과 나무로 가득하다.

4,715㎡ (약1,426평) 옛 학교 운동장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관람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정원 한 칸 에는 수련 가득한 연못도 있다. 실로 비밀의 화원과 같은 모습이다.

아이 미술관은 앞으로 전시기회를 갖기 어려운 젊은 작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내주고자 한다. 일주일 전시하고 작품을 내리는 갤러리가 아니라,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작가를 위해 최대한의 공간과 신간을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이미술관의 바람이다.

오는 가을에는 “어린이 미술제”를 열 계획이며 내년 4월에는 출향작가 초대전을 열



예정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세미나와 주민들과 연계하는 미술 프로그램,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와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가장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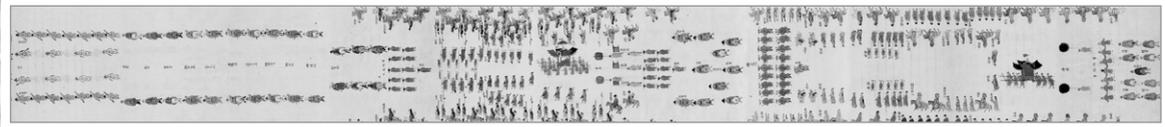
생명력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로 한 개인의 공간이 아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연스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엔 대도시처럼 큰 미술관이나 예술품을 접할 기회가 적다. 구석구석 더 많은 미술관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미술과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당진, 서산, 예산 등 처음으로 생긴 아미 미술관에 많은분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

- 명 칭 : 아미미술관
- 위 치 : 충남 당진군 순성면 성북리 160-1
- 관 랑 료 : 무료 ■ 연 락 처 : 011-381-1433
- E-Mail : amam158@naver.com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전시



(반차도 관람모습)

2011년 6월 25(토) 오전 9시부터 서산문화원 서산향토사료관(원장 이준호)에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가 서산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되었다.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는 1759년 조선 21대 왕인 영조와 그의 계비인 정순왕후의 왕실 혼례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의궤(義軌)”이다. 신부의 간택을 비롯하여 왕실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인 “육례(六禮)”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의궤의 말미에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친영(親迎)” 의식을 그림으로 그린 “반차도(班次圖)”를 향토사료관에서 특별 전시하였다. “친영”이란 별궁에서 왕비수업을 받고 있던 정순왕후를 궁궐로 모셔오는 행사를 말한다. 반차도는 이 의식을 50면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지공예 체험모습)

반차도에는 총 1,188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그림의 총길이는 1,650cm에 달하고 실제 행렬의 길이는 약 1.5km나 되는 대규모 행렬이다. 서산향토사료관에 전시된 반차도는 50면중 핵심이 되는 18장을 간추려 모아 축소 전시한 것으로 영조와 정순왕후의 생생한 혼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순왕후는 서산지역에서 배출한 유일한 왕후이며 정순왕후 생가는 음암면 유계리에 남아있다. 이번 특별전시는 서산의 역사 인물을 알리고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100여명의 서산시민과 학생들이 찾아와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그림뿐만 아니라 향토사료관에 상설 전시되고 있는 280여점의 서산지역 유물도 관람했으며 다도, 도예, 한지공예 체험장도 함께 운영하였다. 학생과 서산시민들에게 서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반차도는 특별전시후 서산향토사료관에서 계속 상설전시 하고 있으며 반차도의 280여점의 서산지역의 유물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도예 체험모습)

단오한마당 개최



서산문화원은(원장 이준호) 지난 6월 5일 오후 2시부터 중앙호수공원 광장일대에서 단오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태양의 기가 가장 왕성한 날을 기리며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4대 명절중 하나이다. 이러한 단오의 의미를 되살려 중앙호수공원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마당을 마련하였다.

행사는 전통무용단의 흥겨운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윷놀이, 팔씨름, 투호 등 민속놀이로 꾸며진 민속놀이마당, 수리떡 만들기, 단오부채 만들기, 창포 샴푸만들기 등이 마련된 단오 체험마당으로 펼쳐졌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물풍선 던지기, 부채만들기 등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이루어졌다.

단오 세시풍속 체험과 민속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단오한마당 행사에 50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전통을 배우고 민속놀이를 즐겨 가족간의 정도 돈독히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지역문화학교 여름특강 개강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2011년도 지역문화학교 여름특강을 시작했다. 강좌는 문화·예술 강좌, 전문가 육성강좌, 임산부 강좌로 구분하여 총 13개 강좌를 6월 20일부터 과목별 선착순 모집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운영된다.

이번 여름특강은 요가지도사과정 등 전문가 육성강좌를 새롭게 추가하여 자격취득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자녀지도 및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여름특강을 실시하지 않았던 서산문화원은 올해 여름특강을 통해 수강생들의 유기적인 수업진행과 심화된 평생교육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역문화학교 수업은 지난 7월 4일부터 8주간 진행되며 하반기 지역문화학교는 8월 중순경 모집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문화원 사무국(669-5050)과 홈페이지(seosan.cult21.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화

원

수

직

■ 여름특강 개강

- 강의기간 : 2011. 7. 4 ~ 8. 26(8주)
- 강의과목 : 플룻, 바이올린, 한국화, 문예창작, 전통무용 초급, 전통무용, 중급, 가베지도사, POP예쁜글씨3급, 리본아트, 요가지도사, 바른글씨 예쁜글씨, 임신부요가

■ 찾아가는 다도교실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다도교육을 실시합니다. 인성교육 및 생활예절을 배울 수 있는 다도교실입니다.

- 일 시 : 2011년 7~8월 중
- 장 소 : 서산시 소재 유치원, 보육시설, 다문화 관련기관
- 대 상 : 해당 장소 학생
- 교육내용 : 전통차와 대용차, 차의 정신, 생활예절, 차도구 사용하기, 차음식 만들기 등



■ 서산향토사료관 관람 안내

서산의 역사자료와 향토자료들을 수집하여 전시한 박물관입니다. 서산시민과 학생들의 역사학습 장소로 꼭 방문해보세요.

- 장 소 : 서산문화원 3층
- 관람시간 : 평일 월~금요일 10:00~17:00
(정기휴관일: 토요일, 일요일, 국정 공휴일)
- 관 랐 료 : 무료
- 전시내용 : 박첨지놀이·승무복 등 문화재 전시, 구석기~조선시대 유물 전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등 전시물 280여점

※ 10인 이상 단체 관람시 미리 연락주시면 편리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 | 정 | 소 | 식

■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안내

2011년 7월 1일부터 셋째아 무상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읍·면·동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시고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1. 7. 1부터(6개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영유아로서 셋째아 이상(소득 하위 70% 초과자)
- 지원기준 : 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충남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
- 입양아, 쌍둥이 및 재혼으로 인한 자녀의 셋째아 모두 포함
- 지원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 신청 → 어린이집에 셋째아 이상 확인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등)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개별신청) → 어린이집 결재(신청일부터 지원)
- 지원단가 :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100%)
- 만 0세 394천원, 만 1세 347천원, 만 2세 286천원,
만 3세 197천원, 만 4,5세 177천원

※ 아이사랑카드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www.shinhancard.com(신한카드 홈페이지로 신청)
- 방 문 신 청 : 신한은행, 신한카드 지정 방문
- A R S 신 청 : ☎ 1544 - 8868(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로 신청)
- 문 의 처 :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 1544-8868)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남현우 (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서중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임석노 (서산시 읍내동) 100,000원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박봉규 (서산시 석림동) 5,000원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김경희 (서산시 성연면) 20,000원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박만진 (서산시 동문동) 240,000원
- 이용조 (충북 청주시) 20,000원
-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1,000,000원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